



데스크톱용 스마트 재해 복구 전략: 데스크톱의 서비스화(DaaS)

백서

목차

내용 요약.....	3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 현실로.....	3
데스크톱 재해 복구의 어려움.....	3
DaaS: 데스크톱 재해 복구를 대비한 보험.....	4
일반적인 DaaS 재해 복구 시나리오.....	4
결론.....	5

내용 요약

대부분의 조직은 자연 재해 또는 대규모 정전이 즉시 발생하더라도 재해 복구(DR)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동과 실행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대부분의 재해 복구 계획은 충분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와 네트워크에는 적용되지만 데스크톱 문제는 전혀 해결 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비상 상황만을 위해 물리적 데스크톱을 복제하는 작업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데스크톱이 가동 중단되면 직원들은 며칠 동안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업무에 미치는 여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재해가 닥칠 때 언제 어디서나 직원 생산성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간편한 방식으로 데스크톱의 서비스화(Daa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 현실로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아이린, 카트리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이러한 자연 재해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북동풍, 폭설, 지진, 폭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아마도 정전이 발생하거나 직원의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조만간 그런 일이 닥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연 재해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해도 현지 전력 공급업체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데스크톱 장비 장애 시 업무에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했을 때 뉴욕 지역 기업 매출 60억 달러 손실로 이어졌습니다.¹ 샌디가 극단적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최근 CDW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 IT 시스템 중 25% 이상은 한 해 동안에도 4시간 이상 정전 여파를 맞아 1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² 개별 기업 수준에서 업무 중단으로 인해 생산성 및 기회 손실 면에서 직원당, 일당 비용이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설치된 물리적 데스크톱을 통해서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날씨 탓으로 출근할 수 없거나 정전 때문에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구현했지만 가상 데스크톱을 구동하는 서버가 정전된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근무지에서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직원들은 업무를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데스크톱 재해 복구의 어려움

기업이 데스크톱용 재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재해 복구를 생각하는 대로 데스크톱용으로 별도의 재해 복구 시설을 운영하는 일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설비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차적인 시설과 중복 데스크톱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고 비용을 조달하는 일을 비용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재해 복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운영 인프라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중복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테스트를 실시하여 재해 복구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Gartner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재해 복구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기업당 15만 달러입니다.³

DaaS: 데스크톱 재해 복구를 대비한 보험

데스크톱의 서비스화, 즉 DaaS는 데스크톱용 스마트 재해 복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려면 먼저 Daa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DaaS는 최종 사용자에게 태블릿, 스마트폰, 랩톱, PC, 씬 클라이언트 등 어느 기기에서든, 즉 어디에서나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로부터 제공되는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은 기업 IT 환경의 일부와 같은 양상과 기능을 가집니다. 물론 안전한 원격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됩니다.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모든 인프라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캐리어급(carrier-class)의 매우 안전하고 가용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에 설치됩니다. 필요한 데스크톱의 수와 종류에 대한 월별 구독 비용만 투자하면 됩니다.

DaaS는 본질적으로 재해 복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해 복구에 적합합니다. 그리드 기반 DaaS 플랫폼을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지역 다중 데이터 센터 DaaS 재해 복구 서비스를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 시설에 타격을 입히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고가용성 데이터 센터에 데스크톱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 센터에 걸쳐 데스크톱을 호스팅하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러한 업체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가 재해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되는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재해 복구에 DaaS가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호스팅 데스크톱은 사무실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항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액세스만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어디서나 어느 기기, 심지어 개인용 기기를 사용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IT 조직이 별도의 재해 복구 환경을 유지 관리하거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재해 복구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데스크톱 용량을 확보하고 복구 골드 이미지를 설계하고 데스크톱을 스토리지로 프로비저닝하고 필요 시 가동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고 화면을 몇 번 눌러 DaaS 재해 복구 구독에 가상 데스크톱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해 복구 테스트를 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DaaS 재해 복구 시나리오

기업이 재해 복구용 DaaS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두 가지입니다.

1. 물리적 데스크톱 환경을 위한 보장
이 시나리오에서는 DaaS를 물리적 데스크톱용 재해 복구 전략으로 사용하여 서비스 공급업체에 사용자 전체 또는 일부를 위한 용량을 확보합니다. 계정을 설정하고 이미지를 프로비저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로 데스크톱을 활성화하고 즉시 사용자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내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의 재해 복구
사내 VDI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센터와 가상 데스크톱을 가동하는 서버가 중단되는 긴급 상황에서 Daa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몇 분만에 가동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어디서나 DaaS
DaaS는 본질적으로 재해 복구 기능이 있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IT 부서와 최종 사용자의 작업을 한 걸 간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일상적인 용도로 데스크톱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회사에 자연 재해 또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데스크톱 재해 복구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DaaS 재해 복구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으면 서로 다른 모델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혼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핫 또는 콜드
 - 핫: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클라우드 호스팅 데스크톱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포함해 용량이 기업에 할당 및 확보되어 있습니다.
 - 콜드: 다른 기업과 인프라 용량을 공유할 수 있어 즉시 액세스가 필요 없지만 일정 시간 내에 가동과 실행이 필요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스토리지가 할당됩니다.
- 전용 또는 공유 데스크톱
 - 지속적인 전체 Windows 7/8 데스크톱입니다.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를 통한 공유 세션 데스크톱입니다. 이 대안을 사용하면 사용자당 설치 공간 및 스토리지가 줄어들며 가장 비용이 적은 옵션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재해 복구에 공유 및 전용 DaaS 데스크톱을 혼용합니다.

결론

연중무휴 업무가 필요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장시간의 다운타임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심각한 폭우나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근로자들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도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효율적인 데스크톱용 재해 복구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면 재해 복구용 DaaS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직원을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면서 완벽한 방법입니다. 언제 폭우가 닥칠지,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VMware Horizon™ DaaS® 플랫폼과 데스크톱 재해 복구 전략 지원에 활용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vmware.com/products/daas>를 참조하십시오.

1 “Hurricane Sandy’s Rising Costs,” NY Times, 2012년 11월 27일

2 “2010 CDW Business Continuity Straw Poll: Plans Don’t Align with Reality.”

3 “Best Practices for Planning and Managing Disaster Recovery Testing,” Gartner, 2011년 8월

